

다문화가족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 - 결혼이민자 여성의 스트레스 인식 요인을 중심으로 -

박수선** 류한수***

요 약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족 증가로 인해 대상 가족에 대한 문화적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대부분은 국가에 대한 문화적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가족 형성과정부터 근본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 뿐 아니라 남편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스트레스이며, 갈등 증폭의 원인이 된다. 이 시점에서 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아시아 국가들을 모두 대상화하여 그들이 인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응력 향상을 돕는 적응모델이 구축된다면 문화적응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여성의 적응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로 한국의 수도권인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본격적인 스트레스 요인 파악을 위한 탐색적 조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방법으로는 한국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 11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대상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중국(5명), 필리핀(3명), 베트남(2명), 캄보디아(1명) 여성 11명이다. 이들의 연령대는 23세부터 42세까지 다양했으며, 한국 체류기간도 15개월에서 7년 정도의 범위이고, 자녀가 없는 여성부터 3명의 자녀가 있는 여성까지 다양하였다. 결혼이민자 여성 11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생활에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인터뷰 결과 도출된 영역은 가족관계 영역, 자녀양육 및 교육 영역, 경제적 생활 영역, 언어와 문화차이 영역, 기타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자녀양육 및 교육영역의 스트레스 인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복지현장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개입시 우선 문화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더불어 남편과의 쌍방간 문화적응을 중시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족단위의 보다 확대된 서비스 접근이 필요하며, 자녀교육비 대비와 취업육구 해소를 위해서라도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자립 토대 마련의 노력이 실천현장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위한 정신 건강 돌봄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스트레스원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는 한국형 척도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주제어 : 다문화가족, 적응력, 스트레스

논문 제출일 : 2009. 12. 15

최종 심사일 : 2009. 12. 28

* 본 논문은 2009년 4월 10일 개최된 한국부모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 · 보완 한 것입니다.

** 우송대학교 의료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주저자

*** 우송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Park Su- Sun, Dept.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Woosong University, 17-2, Jayang-dong, Dong-gu, Deajun, Korea, 300-718. E-mail: sunybono@mepal.com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세계화와 개방화로 인한 세계의 역동적인 교류 속에서 다양한 인종의 이동 및 결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2007년 통계청 발표에서 보면 국제결혼은 현재 총 38,491건으로 전체 결혼수의 11.14%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그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설동훈, 2006).

한국에서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의 경우는 남녀성비불균형, 여성의 결혼경사현상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본인에게 알맞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외국 여성과 결혼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한국에 결혼을 통해 입국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대부분 연애기간이 길지 않고 한국에 대한 문화적 인식하지 못한 채 한국에 오고 있으며, 남편을 포함한 한국 가족 역시 여성의 국가에 대한 문화적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가족형성과정부터 근본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시 발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 뿐 아니라 남편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만 제대로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채 소통이 힘든 상황에서 생활이 계속된다보면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상 즐거움과 함께 스트레스를 포함하고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가족 발달단계를 다른 두 문화의 적응과 함께 보내야 하며, 적합한 역할모델(role-model)이 부재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여성결혼이민자 당사자 및 다문화가족의 스트레스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혼이민자여성의 연구는 여성을 희생자의 관점에서 보거나 의사소통 등과 같은 생활상의 몇 가지 어려움을 측정하는 연구라는 한계점(김오남, 2006)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우선 결혼은 생활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희생자가 아닌 주체자가 되어 그들이 인식하는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수용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간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포함된 한국의 국제결혼과 관련된 아시아 국가들(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을 모두 대상화하여 그들이 인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응력 향상을 돕는 국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뒷받침하여 본 연구는 현재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 적응력 향상을 위한 동아시아 모델 구축(가제)*’의 한국 연구 중 일부로 수도권인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본격적인 스트레스 요인 분석을 위한 탐색적 조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혼이민자 여성이 개인적으로 인지하는 스트레스원이 무엇인지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고자 하

* 본 연구는 현재 3년을 목표로 단계별로 진행 중이며, 좀 더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 해당 국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여성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별로 구분한 후 개인별 정신건강을 포함한 개인적 요인, 스트레스원 및 대처방법, 사회통합 차원 등의 미시적, 관계적, 거시적 분야를 주제로 결혼이민자여성 요인, 남편요인, 가족요인 등을 나누어 양적, 질적 조사를 실시하여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위한 동아시아 적응 모델을 구축하는데 취지가 있다.

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분야 중에서 가장 먼저 스트레스 인식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다양한 국가의 여성들은 문화 적응시 스트레스를 인식하는데, Lazarus(1984)는 이는 당사자 개인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지적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 인식 정도에 따라 한국생활의 적응은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관련변인 분석 등 다양한 추후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결혼이민자 여성의 인터뷰를 통한 스트레스 인식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개인의 고유한 문화 속에서 다른 문화와 접촉하여 개인이 변화하는 과정인 심리적 문화적응은 높은 스트레스 요인들을 포함한다(Berry, 2005).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잘 극복한 경우 적응단계에 도달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부적응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극복 여부는 인식대상인 결혼이민자 여성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최규련 · 송정아, 2006).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가족의 한 형태인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 적응시 개인적으로 인식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스트레스 분야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에 대한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기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

국제결혼은 부부가 동일 국적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 소유자를 배우자로 선택하여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이란 한국인남성과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을 의미한다. 이들 여성에 대한 용어는 ‘결혼이민자’, ‘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여성’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성립배경을 근대 한국의 국제결혼에서 찾아보면 소수의 엘리트 여성이나 미군기지 주변의 여성들이 경제적 욕구와 근대적인 서구 문화의 갈망을 안고 시작한 미군과의 국제결혼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숫자도 소수에 불과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송출국의 입장이었던 반면, 1990년을 기점으로 여성보다는 오히려 남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성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첫째, 경제적 능력을 중시하는 여성들이 경제력이 높은 전문직 남성을 선호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남성이나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회풍조로 인해 결혼의 상대를 찾기가 어려워 그 해결방안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둘째, 일부 종교단체가 선교의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것으로 그 주 대상은 일본과 필리핀 여성들이며, 또한 농촌총각과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정보 센터에서 사업적으로 매개하는 섭외혼인도 국제결혼을 증가시키는 커다란 요

인이 되고 있다.

셋째, 남아선호사상으로부터 기인된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원인이 있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 기준 한국의 남녀 성비는 105:100이었다.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되어 2012년에는 결혼연령층에 해당하는 남녀성비 비율이 124:100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결혼 적령기 남성들은 비슷한 연령대의 신부감을 찾기가 계속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저소득, 저학력, 농촌거주, 재혼을 원하는 남성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실제 2001년에서 2004년까지 국내 내국인간의 재혼비율은 17-18%로 나타난 반면, 다문화가족 중 재혼의 수는 43.8%로 나타나 상당한 수가 재혼임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5).

그 외에는 유학과 취업,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해외근무, 독신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었다.

통계청보고에 따르면 2007년 총 혼인건수는 345,592건으로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건수는 38,491건에 해당된다. 그 중 2007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현황을 보면 총 29,140건이다(<표 1> 참조).

<표 1> 국제결혼 추세 및 인구구성

(단위 : 건, %)

연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2006	332,752	39,690	11.9	30,208	9.1	9,482	2.8
2007	345,592	38,491	11.1	29,140	8.1	9,351	2.7
1997~ 2007	3,698,141	261,079	7.1	186,758	5.1	74,321	2.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2007.

국적별로 보면 총 105,913명의 여성 결혼이민자 중 중국은 한국계 중국인 포함하여 58,440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베트남은 25,185명, 필리핀 5,444명, 일본 4,950명, 캄보디아 2,727명, 몽골 2,266명, 기타 4,928명으로 나타났다(<표 2>참조).

<표 2> 결혼이민자 국적별 · 성별 현황

(단위 : 명)

국적 구분	계	한국계 중국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태국	기타
전체	120,321	36,831	30,639	25,319	5,470	5,605	2,737	2,298	2,011	9,411
남자	14,408	6,075	2,955	134	520	161	10	32	38	4,483
여자	105,913	30,756	27,684	25,185	4,950	5,444	2,727	2,266	1,973	4,928

출처: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2008. 8.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차 또한 한국인 부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2006년의 경우 한국인 부부의 혼인연령차(2.4세)에 비해 여성결혼이민자 부부는 4.8배(11.5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러한 차이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앞으로 아이와 아버지가 보내는 시간이 감소할 것이며, 이는 경제적, 교육적, 가족관계적 부분 등에서 많은 잠재적 문제를 내포할 것으로 예측가능하다.

<표 3>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

(단위 : 세)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남자+외국 여자	6.7	7.4	7.8	8.2	8.3	9.1	11.5
한국 남자+한국 여자	2.7	2.6	2.6	2.6	2.6	2.5	2.4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복합적인 현상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역기능적인 가족 관계를 야기하며 이혼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해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가 더불어 이혼율의 큰 상승폭이 일어나 2007년에는 3,034건의 이혼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표 4>). 이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문제, 사회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4>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이혼 건 수	145,324	167,096	139,365	128,468	125,032	124,590
외국인과의 총 이혼	1,866	2,164	3,400	4,278	6,280	8,828
총 이혼 대비 구성비	1.3	1.3	2.4	3.3	5.0	7.1
증 감	-	298	1,236	878	2,002	2,548
증 감 률	-	16.0	57.1	25.8	46.8	40.6
한국인 남편 + 외국이 처	401	583	1,611	2,444	4,010	5,794
증 감 률	-	45.4	176.3	51.7	64.1	44.5

한국인 처 + 외국인 남편	1,465	1,581	1,789	1,834	2,270	3,034
증 감 륜	-	7.9	13.2	2.5	23.8	33.7

출처: 법무부, 2007. 12.

III. 스트레스 관련 문헌 고찰

1. 스트레스 개념

원래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stringer(팽팽하게 죄다)'에서 유래되어, 14세기 들어서 일반화 되었다.

현재까지의 스트레스라는 개념은 연구자들의 관점 차이로 인하여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생리·의학적인 측면, 심리학적인 측면, 유기체와 환경간의 상호작용 측면, 그리고 정서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elye(1956)은 생리·의학적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신체에 가해진 어떤 요구에 대하여 신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적응 중후군(General Adaptation Syndrome: GAS)라고 정의한 뒤,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eustress),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distress)라고 하였다. 즉 환경적 요구 보다는 그러한 요구로 인해 생겨나는 일련의 보편 생리적인 과정을 스트레스라고 함으로써, 최근까지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는데 지배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Lazarus(1984)는 스트레스를 심리내면적인 측면에서 환경적 요구와 그에 대한 지각 및 대처능력 인지 간의 불균형으로부터 초래되는 결과로 정의하고 인지 과정의 평가를 중요시하였다. 또한 그는 다면적 분석 수준에서 스트레스를 검증하기 위해 체계론적 접근으로 스트레스가 의미하는 범위의 한계를 명시하고, 자극과 반응에 의한 정의, 관계적 정의, 환경과 상호작용으로서의 정의 등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자극과 반응으로서의 정의에서는 스트레스 자극이 되는 사건들로는 자연재해, 전쟁 등의 다수인에게 격변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주는 큰 변화와 직장에서의 해고, 이혼, 출산 등의 한 두 사람정도의 소수인에게 영향을 주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중대한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적 정의에서는 스트레스는 그 자체 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취약한 조직이나 부적절한 대처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대처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셋째, 환경과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은 스트레스를 개인의 심리적 요구와 사회 환경적 요구의 불조화를 보는 시각에서 정의한 것이다(Lazarus & Folkman, 1984).

McGrath(1982)는 개인이 지각하는 환경 요구와 반응 능력 사이에 계속적으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인지 평가를 내릴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Paykel과 Uhlenhuth(1971)는 환경에 변화를 주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스트레스를 '생활 사건 변화

로 인해서 유발된 감정 변화'로 정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스트레스란 대상자의 심리내면적인 측면에서 환경적 요구와 그에 대한 지각 및 대처능력 인지 간의 불균형태가 이루어질 때 초래되는 결과로써 그 상황 자체보다도 개인이 이를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우려점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스트레스가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시 발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한국 생활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개인 뿐 아니라 남편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만 제대로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채 소통이 힘든 상황에서 생활이 계속되다보면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결혼이라고 하는 발달단계를 두 문화의 적응과 함께 보내야 하며, 역할모델(role-model)이 부재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스트레스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가능하다.

이 상황에서 우선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이며, 이러한 문화적응 과정에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지하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국생활 적응여부가 좌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문화 적응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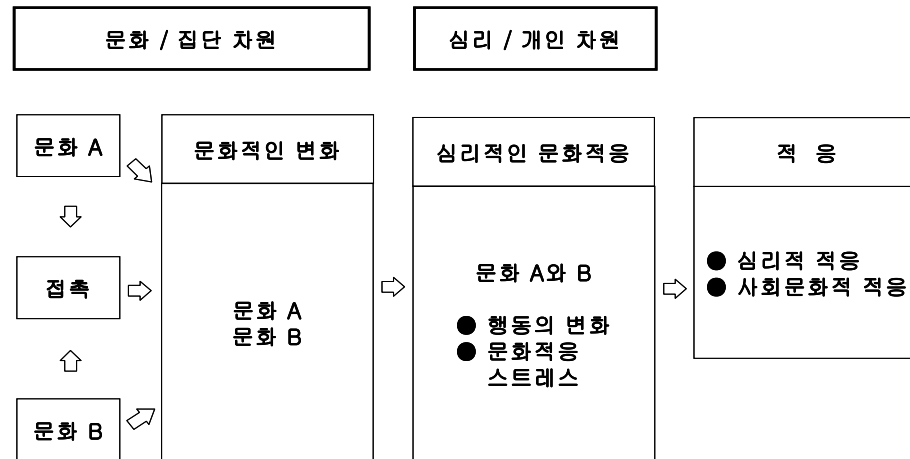
스트레스 대처 접근은 문화적 이동을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응적 자원과 대처반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접근은 정서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이론인데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 접근의 영향을 받아 분석의 틀이 개인적 차원에 머무를 뿐 아니라 상황적 차원도 함께 고려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비교문화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하여 찾아내려고 했다.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Lin, Tazuma & Masuda, 1979)이나 통제신념의 위치(Locus of Control), 외향성, 모호함에 대한 인내 등과 같은 성격특성(Ward & Chang, 1997; Ward & Kennedy, 1992), 변화에 대한 인지적 평가(Chataway & Berry, 1989), 대처방식(Shisana & Celetano, 1987), 그리고 사회적 지원(Adelman, 1988), 향수병(Pruitt, 1978), 결혼여부(Naidoo, 1985), 본국과 수용국과의 관계(Furnham, 1985), 그리고 기타 성, 인종, 취직여부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결론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하고, 개인에게는 위기를 가져온다고 하였다(Smart & Smart, 1997).

스트레스 대처 접근은 한국생활에서 경험한 생활사건의 의미,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들의 인지적 평가, 그리고 변화를 다루는 대처전략의 선택과 수행 등에 초점을 둔다. 핵심적인 가정은 문화간 접촉과 변화가 사회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서 발생하여 대상자의 원래 사회와 정착하게 되는 사회의 특성 모두에게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문화적응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Berry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와 행동상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문화적응 이해의 틀' [그림 1] 을 고안하였다. 먼저 문화적/ 집합적 수준으로 보았을 때 A와 B의 문화가 갖는 집단의 특성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의 관계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 후 심리적/개인적 차원에서 두 문화를 접한 개인의 심리와 행동의 변화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심리적, 사

회문화적 분야의 적응이 이루어 질 수 있다.

Berry 등(1988)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정의하였으며, 문화적응과정에서 이주자들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상실의 경험을 하며 갑작스럽고 과다한 자신의 지지체계를 잃은 상실감은 개인의 적응능력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1] 문화적응 이해의 틀

출처: Berry, J. W(2002).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Acculturation-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Johnson과 Warren(1994)의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과의 연구에서는 국제 결혼한 배우자에게 믿음, 관습, 전통, 삶의 양식을 포함한 문화적 차원이 결혼생활의 중요한 면으로, 남편과 부인의 문화적 태도와 행동간 차이는 부부 전체의 삶에 만성 스트레스의 원천이라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공적인 환경에서보다 가정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Berry, 1997),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남편과 부인은 특히 더 취약하다고 하였다(Burman & Margolin, 1992; Gotlib & Hooley, 1988). 박종삼(1983)은 부부갈등요인 중 하나로 문화적 요인을 언급하였는데, 체면 문화, 기분 문화와 가치문화 간 차이면에서 서로 문화 맥락적 차이를 알지 못한 채 내면세계에서 소외된 사실을 느끼게 되고, 결혼생활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다. 양선화(2004)는 기후, 음식, 관혼상제 등 풍습과 문화가 다른데서 오는 혼란과 적응문제가 생활전반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신경희(2004) 역시 남편이 가정 한 일정 기간동안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함에 대해 부인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문화적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부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 자체가 부부 및 가족간의 갈등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않지만 이러한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한 인지가 중요함을 밝힌 연구들(성지혜, 1996; Baltas & Steptoe, 2000)로 발표되었다.

스트레스의 인지의 중요성은 전통적인 가족스트레스 모델에서도 나타나는데 Hill의 ABCX모델이 대표적이다. ABCX이론에 있어서 어떤 사건(A)이 위기(X)를 생성하려면 가족의 자원(B)과 가족의 사건에 대한 정의(C)와 상호작용해야 한다(이원숙, 2007). 결국 가족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와 가족의 결속력, 의사소통 정도, 애정정도 등의 자원이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해내는 중요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결혼이민자 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상황에 적용시킨다면 원래 가족의 자원이 풍부할수록 또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해 부정적인 인지도가 낮을수록 다문화가족의 적응력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극복은 우선적으로 양국 모두의 각 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결혼이민자 여성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한국 가족의 자원력 향상과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 도모 등 가족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IV.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의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1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한국생활 적응시 개인이 인지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 11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한국생활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한국생활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점은 무엇입니까?’하는 내용이다.

본 인터뷰의 대상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5명), 필리핀(3명), 베트남(2명), 캄보디아(1명) 여성 11명이다. 이들의 연령대는 23세부터 42세까지 다양했으며, 한국체류기간도 15개월에서 7년 정도의 범위이며, 자녀가 없는 여성부터 3명의 자녀가 있는 여성까지 다양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을 서울·경기지역으로 한정한 이유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삶이 거주지역(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김인철, 2008; 김오남, 2006)이며, 우선적인 연구과제로 수도권 도시지역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추후 비교연구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본 인터뷰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인터뷰 대상자 인적사항

순번	이름 (나이)	국적	학력 및 전직	만남기회	한국체류 기간	남편 나이	자녀수
1	왕* (30세)	중국 (만주족 료닝성)	대학교 졸업/회사원	중국회사에서 만남 남편과 자유연애	2년 정도	45세	2명(16개월/6 개월)
2	루** (42세)	필리핀 (이사벨라)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학교 졸업	통일교회	7년 정도	44세	3명(7세/2세/1 세)

3	이** (23세)	중국 (하얼빈)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학교 졸업/언니가하는 미용실 도움 -현재 중국통역과 대학생	중개사무소 소개	2년 정도	40세	1명(7개월)
4	몽** (26세)	캄보디아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학교 졸업	아는 사람의 소개	2년 정도	37세	1명(14개월)
5	드** ** (25세)	베트남 (호치민)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학교를 마치고 회사근무	중개 사무소 소개	4년 정도	40세	1명(4세)
6	응* ** (29세)	베트남	학력수준은 잘 모름/공장에서 미싱일 함	친구소개	15개월	49세	없음
7	장** (23세)	중국 (한족)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학교 졸업	중개 사무소 소개	15개월	39세	없음
8	류** (31세)	중국 (한족/상하이 거주했음)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학교 졸업	아는 사람 소개로 연애	5년정도	44세	2명(5세/3세)
9	박** (34세)	중국 (만주족/청도에 서거주했음)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학교 졸업하고결혼 후 한국에와서 아이 낳기 전에 중국무역회사 다님	친척 소개	5년정도	45세	2명(5세/3세)
10	네** (33세)	필리핀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학교 졸업하고 결혼 후 한국에서 식당일 4개월 정도 함	친구소개	7년	45세	2명(6세/5세)
11	님* (29세)	필리핀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학교 졸업하고 결혼 후 한국에서 친척분의 피부관리실일 도움	아는 분 소개	3년	44세	1명(13개월)

2.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방법

1) 연구절차

인터뷰 대상자 섭외는 서울·경기지역 결혼이민자 여성대상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5곳에 조건에 알맞은 대상자를 2008년 11월 한달 동안 의뢰한 결과 3군데의 센터에서 대상들을 소개해주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 10일까지 총 11명의 인터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각 소개기관마다 다양한 국가의 여성들을 만나보려고 조정하였으며, 인터뷰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고,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였으며, 인터뷰 노트에 주요 내

용을 기록하였다.

본 인터뷰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자들이 본 인터뷰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어본 후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질문들을 실시한 후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면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결혼이민자 여성의 개인생각은 어떠한지 질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질문하였으며 몇 명만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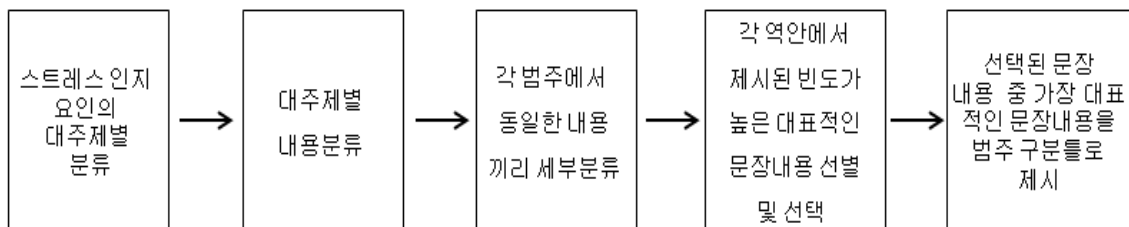
매일 인터뷰가 끝나면 녹음된 내용을 듣고 인터뷰 노트를 참조하여 축어록을 작성하여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2)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몇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축어록의 내용을 여러차례 반복하여 숙독한 후 정리한 내용들을 자세히 분석하여 비슷한 부분끼리 하나의 범주로 만들었다.

분석절차에서 내적타당성 검증을 위해 박사급 다문화가족 국내외 전문가 각 1인씩 총 2인의 도움을 받아 2인 모두의 동의를 얻는 확인절차가 병행되었다.

연구결과에 범주들에서 제시된 문장들은 관련내용 중 가장 대표적인 내용을 선택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 범주안에 속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2] 자료 분석 절차

V. 인터뷰 결과 및 해석

결혼이민자 여성 11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생활에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인터뷰 결과 도출된 영역은 가족관계 영역, 자녀양육 및 교육 영역, 경제적 생활 영역, 언어와 문화차이 영역, 기타 영역 총 5가지로 분석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 영역

결혼이민자여성의 한국 생활 적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상은 가족이며, 그 중 남편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여성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요인 중 가족관계 영역은 가장 많은 이야기가 거론된 남편, 시댁, 그리고 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가장 중요한 지지자인 남편

가족관계안에서 결혼이민자 여성 역시 한국부부관계에서와 다를 바 없이 남편의 지지를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 남성의 강한 가부장적 사고와 가정 내에서의 소통부재, 술, 도박 등의 문제습관 반복 등은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에 가장 많은 불만을 나타내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고 멍했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원래 그런거라는데 남성도 여성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달라야 하는지, 먼저 성별부터 보는지 이해가 안가요(중국, 왕 *).

또한 퇴근 후 남편과 보내는 시간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게 되면 혼자라는 고독감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남편만 내 편이 되어주면 다른 부분이 힘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이야기도 같이 안하고, 밥만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자면 저는 하루종일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요.’(필리핀, 루**)

‘한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남편인 것 같아요. 남편과의 관계가 좋으면 웬만한 문제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남편이 날 몰라주면 정말 한국에 건너온 이유가 사라지는 것 같아 힘들어요. 남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중국, 박**).

덧붙여 남편이 술이나 도박과 같은 문제적 행동을 반복하고 의사소통까지 힘들 경우 가정 폭력 등의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남편에게 가장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매일 술을 먹는거예요. 저녁에 집에오면 마시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소주를 마셔요. 그것도 많이 마시면 2병이나 마시고 뭐라고 하면 목 소리가 커져요. 무서워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베트남, 드***)

2) 시댁식구와의 적응 부담감

두 번째로 가족관계에서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스트레스원으로 나타난 것은 시댁식구들로 나타났다. 한국의 가정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한국문화 및 가풍을 알게 해 준다고 한

국에 온 초기에 시댁어른과 같이 살게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와 한국문화에 아직 잘 적응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 결혼초기의 시댁어른들과의 동거는 더욱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의 간섭, 잔소리 등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 시어머니의 간섭과 잔소리에요. 나갈려고 하면 어디나가느냐, 왜 나가느냐, 친구들은 왜 그렇게 자주 만나느냐라고 계속 잔소리를 하고 시장에 갔다오면 무얼 사왔는지 다 봐야하고 돈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고..... 옷이나 하나 사달라고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그걸 왜 살려고 하나고 먼저 못 사게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따로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어요.’(필리핀, 류**)

3) 늘 보고 싶고 그리운 친정

결혼으로 인해 타국인 한국에서 생활하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중 하나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친정식구들을 보고 싶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지만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데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그리하여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하여 자신의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고 싶다고 열망하고 있었다. 특히 친정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결혼이민자 여성이 아이를 출산 한 후 더욱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같은 중국인인데도 가족 입국시 민족마다 차이가 있어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었다.

‘정말 부모와 형제자매를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어요. 본국으로 자주 가기도 어렵고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는데도 매우 어려워요. 특히 중국인들 중에서도 조선족은 들어오기가 쉬운데 우리는 어려워요. 그것도 불만이에요.’(중국, 류**)

‘경제적으로 식구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여기서도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요. 다른 식구들 눈치 보이는 것 같아서 하루 빨리 일하고 싶어요. 제가 열심히 해서 제 돈으로 친정식구들 도와주면 떳떳할 것 같아요. 아이가 조금 더 크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이 낳고 친정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친구를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캄보디아, 몽**)

2. 자녀양육 및 교육 영역

1) 자녀 양육에 대한 제한된 정보 및 남편 도움의 부재

어린나이에 결혼하여 한국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아이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의 부재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플 때 병원을 가는 문제라든지 어린이집 등을 고르는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더욱 같은 나라 여성들끼리 자주 연락하고 모임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같은 외국인 여성들의 자녀에 대해서 다루는 센터 등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니는 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도 우연히 지나가다 들어와서 알게 된 거예요. 많은 여성들이

센터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안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필리핀, 네**)

‘여기 한국어 교실에서 만난 언니들이 어린이집 정보 등을 알려줘요. 이걸 알지 못했으면 많이 힘들었을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 아이가 자라면서도 계속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필리핀, 님*)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상황에서 혹시나 자녀교육에 문제가 생길까봐 한국문화를 잘 알고 있고 한국말을 잘하는 남편과 같이 자녀교육을 하고 싶으나 남편들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잘 갖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아이들한테 좋지 않을까 걱정되서 남편이 집에 오면 동화책 좀 아이한테 읽어주고 같이 놀아 주었으면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답답해요. 특히 글을 알려 주거나 정확한 발음을 해야하는 한국말은 남편이 해주었으면 하는데..... 잘 안되요.’(중국, 박**)

‘솔직히 돈도 그렇지만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매번 물어보 기도 그렇고 남편하고 이야기도 잘 안통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아이가 더 크면 문제가 더욱 커질 것 같아요’(베트남, 웅***)

2) 사교육비 증가와 남편의 직업 불안정

한국의 자녀교육에서 큰 문제가 되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도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남편의 나이가 많아 경제활동을 할 시기가 많지 않을 것이며, 자녀들이 성장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의 교육비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인해 불안감이 매우 높았고 자녀교육에 대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자녀간 세대차이가 급증할 것에 대한 염려도 일부 가지고 있었다.

‘남편이 나이가 많고 언제까지 일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 가장 걱정이되요. 그렇다고 지금 어린 아이들 놓고 일하러 가긴 힘들고..... 애들이 조금 커서 맡길 때가 있으면 빨리 일하고 싶어요. 정말로 걱정되요.’(중국, 루**)

그리하여 몇몇 여성들은 대안으로 본국으로 자녀를 보내어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일부 남편도 동의한 경우도 있었으며, 현재 설득하고 있는 상황도 있었다.

‘한국에선 돈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애들을 다시 중국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중국 친정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거긴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학비도 싸니까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남편도 여기서 힘드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요’(중국, 박**)

3) 자녀양육으로 인한 개인 삶의 변화

한국사회에 적응도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키우다보면 곤란한 경험도 많이 하게 되고 집에만 계속 있게 됨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개인적 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나이가 어리며 결혼 후 신혼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장 불만이 높았다. 한창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신혼기도 누리고 싶지만 남편의 나이가 많고 본인도 어떻게 아이를 가지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경험한 임신과 출산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큰 변화를 초래하였지만 이에 대해 조언을 구할 대상도, 상담을 할 곳도 잘 모르는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가 태어나고 올면 처음에 제일 힘든 것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친정엄마라도 있어서 물어볼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러지 못하지 울고 싶었어요. 하루종일 아이와 지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제 개인시간이란 하나도 없어요. 많이 답답해요. 누가 아이를 같이 돌보아 주면 좋겠어요.’(중국, 이**)

‘처음에 임신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어요. 결혼하고 바로 임신이 되었어요. 지금 은 피임방법을 알아서 하고는 있어요. 다신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요. 이제야 조금 제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또 아길 키우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안할래요.’(중국, 장**)

3. 경제적 생활

1) 여유롭지 못한 어려운 경제 생활

한국말과 한국사회를 잘 모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 정착 초기에 세밀한 은행 업무 등을 보기 어려우므로 대부분 남편이 처음부터 경제생활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별로 불만이 없는 상태이나 자신이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는 것과 남편에게 그때마다 말을 해야 한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는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취업욕구 상승에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웬만한 건 남편이 다 알아서 해요. 그런데 매번 말해야 하는 건 불편해요. 뭘 하려고하면 다 이야기해야 하니까 이젠 좀 제가 웬만한 건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러려니까..... 이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필리핀, 님*)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작아요. 내가 돈을 벌지 않으니까 옛날만큼 저한테 못써요. 그게 답답해요. 남편 돈이니까 눈치가 보여요. 빨리 일하고 싶어요.’(필리핀, 루**)

4. 언어와 문화적 차이

1) 초기에 가장 적응하기 힘든 언어적 문제

한국 생활 초기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 모든 것이 남편을 통해 이루어지고 남편이 도와주기까진 전혀 외부 일을 볼 수 없다는 점을 대부분 여성들이 답답하게 여기고 있었다. 특히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혼자서 외톨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울감까지 느낄 만큼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한국말은 정말 배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배우고 오면 좋았을 텐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 학원도 있다던데 저희는 그런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왔는데 말을 못하니 가족들도 이야기를 잘 안 시켜요. 남편하고는 그림책 보면서 짚으면서 이야기 했어요. 근데 다른 가족들하고는 이야기를 하나도 안하니 답답해요.’ (베트남, 드****)

2) 본국에 대한 편견(차별)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의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오랜 기간 외출을 꺼린 경우도 있었다.

‘결혼 한 후 처음엔 많이 물어봐서 외출을 했다가 한 몇 개월 동안 한번도 밖에 만나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할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나고 물어서 중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더니 큰 소리로 중국 사람들은 도둑놈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뭘 잘못된 것도 아닌데 중국을 뭐라고 하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밖에 다니는 것이 무섭기도 해서 외출을 못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서양인한테는 안그런 것 같아요. 같은 동양인에게 더 그러는 것 같아요.....한동안 못나갔어요. (중국, 왕*)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국가의 문화를 알리고 하기보다는 한국문화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남편 및 시댁 가족들의 일방적 요구에 불만이 높은 경우가 다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중 하나로 한국국적이 아닌 영주권을 받은 여성도 있었다.

‘전 제가 F2비자 말고 영주권을 받았어요. 제가 제 국적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F2비자를 받고 한국인처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제 중국 국적을 포기하면 전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저 제 나라를 버리고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전 제 나름대로 중국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요.’ (중국, 루**)

3) 한국만의 특수한 문화

대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특수한 제사문화나 가부장적 사고 등의 상황을 초기에 매우 이해하기 어려워하였다.

‘한국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제사때 여성들만 부엌에서 밥 먹는거예요. 남자들은 상을 차려서 방에서 먹을 수 있게 하고 여성들은 부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하더라구요’(필리핀, 네**)

‘지금은 하긴하는데 왜 제사를 지낼 때 여성들이 더 일을 많이 해야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선 그렇지 않았는데 명절때 남자랑 여자랑 같이 음식해 먹고 다 치우고 같이 나가서 노래방가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안 그런거 같아요. 남편은 텔레비전 보고 여자는 부엌에서 계속 일해야하고.....이상해요. 그런 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중국, 박**)

또한 한국인의 ‘빨리빨리’를 외치는 문화에 적응하기 매우 어려워했는데 특히, 베트남이나 필리핀과 같은 더운 기후 나라출신의 여성들이 더욱 그러하였다.

‘한국인들은 너무 빨리 빠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만 하면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 지모를 때가 많아요. 천천히 살펴보면서 일하면 좋은 것도 빨리 하라고 하니 익숙하지 않는 제가 힘들 때가 많아요.’(필리핀, 님*)

5. 기타 사항

1) 여가시간의 활용방법 부재

아이가 없거나 자녀를 어린이집 등에 맡기나 일을 하지 않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이면 TV만 보게 되고 어떻게 여가시간을 보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여가시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었다.

2) 한국남성들도 상대국가 문화에 대한 인지필요

한국 남성들도 결혼할 여성 국가의 간단한 언어 등을 포함하여 그 문화에 대해 미리 알았으면 하는 소망을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었다. 만일 남편이 조금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 및 수용도가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문화적 적응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대다수가 이야기하였다. 이 결과는 상대적으로 한국남성들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이 다른 문화권 여성을 가족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생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관 정보부족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망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련 기관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나마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은 현재 기관의 도움을 어떤 형태로든 받고 있는 경우지만 더욱더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구축된 지지망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모든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원하고 있었다.

VI.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의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1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한국생활 적응시 개인이 인지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원은 가족관계 영역, 자녀양육 및 교육 영역, 경제적 생활 영역, 언어와 문화차이 영역, 기타영역으로 총 5가지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보다 안정적인 삶의 형성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논의점과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복지현장에서 결혼이민자여성에 대한 개입은 우선적으로 문화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가장 우선적인 지지자인 남편과의 쌍방간의 문화적응을 중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남편과 결혼이민자 여성은 부부로서 평생동안 모든 영역에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야하는데 다른 문화권이 만나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국제결혼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각자의 문화를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부부공동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를 포함한 각국의 언어를 학습하면서 풍습, 음식 등 각기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경험을 결혼준비 단계부터 꾸준히 실시한다면 부부갈등은 최소화 될 것이며, 이는 다문화가족 전체의 적응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국가별 큰 특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세부적으로 민족내의 차이점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여성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남편평등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민족간에 차이가 있어 다문화가족 안에서 한국문화와 몇가지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및 중국문화 적응에 대한 세심한 탐색과 접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중국여성 안에서도 한국계 중국인과 그 외 중국 여성들간의 차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여성 뿐 아니라 남편, 시부모 등 가족단위의 보다 확대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남편의 가족은 여성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으로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시댁 식구들을 갈등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걸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여성결혼이민자 적응 프로그램들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확장된 내용이 첨부되어진다면 시댁식구들이 갈등을 제공하는 대상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서적 지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앞으로 가장 큰 스트레스원으로 인지하는 분야는 자녀교육 분야로 나타났다. 물론 경제적 문제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지만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자여성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문제는 비단 한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하루 빨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욕구에

부합하여 다양한 자녀관련 정보를 포함한 부모교육이나 자녀양육법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이러한 관심은 아동기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여 청소년 시기를 맞이하여 생의 과도기적 혼란을 경험할 때도 지지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닥쳐올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청소년기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아동, 가족,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각 분야에서 이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대비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자녀교육비 대비와 취업육구 해소를 위해서라도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자립 토대 마련의 노력이 실천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훈련교육과 취업알선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정책과 이주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활동참여 등의 프로그램 등이 개발·수행되어 최소한의 생활유지 및 나아가 개인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적 건강 돌봄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겪는 스트레스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실망감과 불만, 좌절감등이 계속되면 한국생활의 적응에서의 어려움과 중첩되어 결국 여성의 정신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즉, 한국인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우울 좌절, 무기력감 등 정신적 손상은 부부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가족체계 전체에 손상을 가할 수 있으므로, 결혼이민자여성의 보다 안정적인 부부관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한국생활의 적응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부부간 갈등해결을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적극적인 개입으로도 실천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스트레스원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는 한국형 척도의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한국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한국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변수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용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여성 인터뷰는 한국인 인터뷰와 달리 주의할 점이 있어 그 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대상 섭외시 한국말을 어느정도 수준이상 구사할 수 있도록 한국 거주년수가 몇 년정도 지난 여성들을 원했고 이들이 대상화되었지만 개인적 학습능력 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아주 천천히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야기하였고, 가능하다면 인터뷰 대상 섭외시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에 표현력이 좋은 대상자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국가별 특성도 존재하지만 성격 등의 개인별 특성도 인터뷰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뷰 시간은 언어구사나 소통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시간을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터뷰하는 연구자 역시 상대 국가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인터뷰를 실시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뷰 대상과의 만남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좀 더 심도있는 접근이 수행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질문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좀 더 만남의 기회를 가졌더라면 더욱 많은 내용들을 얻을 수 있었으며, 대상자들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결과 분석시 이론적 기준 제시 역시 부족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역시 인터뷰 대상자들의 선택에 대한 제한점이다. 여성결혼이민자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해당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는 센터들이어서 표집자체에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 등을 접하고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 또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들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추후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 및 경기지역 거주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중소 도시 및 농어촌 등의 지역적 특색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지역의 범위를 넓혀 비교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결혼이민자 여성의 삶의 적응에 더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터뷰를 진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도구를 포함하여 진행했다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언어적 능력이 원활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인터뷰 보다는 객관적인 척도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좀 더 명확한 의미전달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방법론 전공 박사학위논문.
- 김인철(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 박종삼(1983). 한미 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의사전달 갈등의 임상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4, 1-15.
- 설동훈(2006). 한국의 결혼이민자 가족:현황과 정책 ‘**한국가정관리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결혼이민자가족: 다양성과 공존을 향하여**’, 1-20.
- 성지혜(1996). 중국교포여성과의 한국남성간의 결혼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희(2004).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선화(2004). 상담사례에서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사)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자료집.
- 이승중(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원숙(2007). **가족복지론**. 학지사
- 정천석(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비교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기독교사회복지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최규련. 송정아(2006).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도서출판 하우.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2008. 8.
-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2007.
- Berry. J. W.(2002).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Acculturation-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 _____, J. W.(2005). Acculturation: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ational Review*, 46(1). p 5-38.
- _____, J. W & U.C. Kim(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eds.) By Dasen, P.R. Berry, J. W. & Sartorius, N. Newbury Park. Sage.
- Burman, B. & Margolin, G.(1992).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relationships and health problems;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Psychology Bulletin*, 112. 39-63.
- Furnham, A.(1985). Why do people save? Attitudes to, and habits of, saving money in Britai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5, 354-373.
- Gotib, I.H. & Hooley, J. M.(1998)..*Depression and marital distres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In; Duck S, HAY DF, Hobfoll SE, Ickes W & Montgomery BM, Eds.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Chichester;John Wiley.
- Jasinskaja-Lahti, I. & Liebkind, K.(2001).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 adjustment among Russian-speaking immigrant adolescents in Fin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6(3). p174-185.
- Johnson, W. R. & Warren, D. M.(1994). *Inside the mixed marriage;Accounts of changing attitudes, patterns, and perceptions of cross-cultural and interracial marriages*. L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Lazarus, R.S. & Fl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in, K.M., Tazuma, L. & Masuda, M.(1979). Adaptational problems of Vietnam refugees;health and mental status. *Achives of Genalral Psychiatry* 36, 955-961.
- McGrath, J.E.(1982). *Mythological Problems in Research on Stress*. in Heinz W. Krohne and Lothar Laux(Ed), *Achivement, Stress, and Anxiety*, New York; Hemishere Publishing Company, 19-48.
- Naidoo, J.(1985). A cultiral perspective on the adjustment of South Asian women in Canada. In I.R. Langunes and Y.H. Poortinga (ed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Studies of behavior across cultures*. Lisse, The Netherlands:Sweets & Zeitlinger, 76-92.
- Paykel, E.S. & Uhlenhuth, E.H.(1971). Scaling of Life Events, *Archives General Psychiatry* 25, 340-347.
- Pruitt, F.K.(1978). The adaptation of African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1, 90-118.
- Selye, H.(195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hill.
- Shisana, O. & D. D. Celentano(1987). Relationship of chronic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style to health among Namibian refuge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4, 145-157.
- Smart, J. F. & D.W. Smart(1995). Acculturative stress of hispanics:Loss and challeng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390-396.
- Ward, C. & Kennedy, A.(1992). Locus of control. mood disturbance, and social difficulty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6. 175-194.

Abstract

A Exploratory Study on adaptation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Park, Su Sun** Ryu, han su***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stress area investigation of multicultural woman has developed the adapting to Korean life and supported successful migrant adapt model form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interview of 11 marital migrant woman who live in Seoul, kanggi-do and 2 hours for interview used.

The result of analysis indicated stress area of multicultural woman consist of family relation, the rearing and education of children, economic of living, language and culture, the other area. The first stressed area of them is the rearing and education of children. Through the this study I could understand that as family stress is accumulated, the most of multicultural woman has children's problem. In front of, above all, it needs that practical national policies about children education area for reduction stress of multicultural woman. Specially, children area of multicultural family relate to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in the future, preferentially focused on children problem of multicultural family.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adaptation, stress

* 본 논문은 2009년 4월 10일 개최된 한국부모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 · 보완 한 것입니다.

** 우송대학교 의료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주저자

*** 우송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Park Su- Sun, Dept.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Woosong University, 17-2, Jayang-dong, Dong-gu, Deajun, Korea, 300-718. E-mail: sunybono@mepal.com